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. 6. 10.(월)

한덕수 국무총리, 쿠바 포함 중남미 6개국과 합동 접견

- 2024 한-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참석 계기 방한한 중남미 6개국 및 OECD
인사와 분야별 협력 증진 방안 협의 -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0일(월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「2024 한-중남미 미래협력포럼」 참석 계기 방한한 중남미 6개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인사를 합동 접견하고 한-중남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.

※ 접견인사 (국명 알파벳순)

- (칠레) 아우로라 윌리엄스(Aurora Williams) 광업부장관
- (쿠바) 카를로스 페레이라(Carlos Pereira) 외교부 양자총국장
- (도미니카공화국) 조아네스 켈너(Johannes Kelner) 산업통상중소기업부차관
- (과테말라) 헥토르 마로킨(Hector Marroquín) 경제부차관
- (온두라스) 에두아르도 레이나(Eduardo Reina) 외교부장관
- (페루) 하비에르 곤잘레스-올라에체아(Javier González - Olaechea) 외교부장관
- (OECD) 호세 알다빈(Jose Ardavin) 대외관계국 중남미 총괄과장

□ 한 총리는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6.25전쟁에서 한국을 지원하는 등 오랜 우방국으로서 한-중남미가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협력을 지속해온 점을 평가하고,

○ 올해 2월 한-쿠바간 외교관계 수립은 한국이 모든 중남미 국가들과 외교망을 완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였다.

□ 한 총리는 지난 2차례 중남미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중남미 협력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,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-중남미간 핵심광물, 방산, 인프라, 친환경 등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

확대중인 만큼,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협력에 지속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.

- 또한, 한 총리는 북한이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통해 안보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하고,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각 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.
- 중남미 6개국 고위인사들은 2024 한-중남미 미래협력포럼이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데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, 에너지, 광물, 교육, 기후변화, 의약품,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.
- 또한, 한국 기업의 중남미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, 한국 기업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팀 장 김진환	044-200-2136
	외교안보정책관실	담당자	서기관 박철순	044-200-2135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

